

[제2018- 호]

 <b>한국문화원</b>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b>보 도 자 료</b>	LA한국문화원 <a href="http://www.kccla.org">www.kccla.org</a> 550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el (323)936-7141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
배포일시	2018. 9. 17(월)	담당자 성진영 (323-936-3018)

## 2018 Korean Cinema Touring Program 개최

LA한국문화원 (원장 김낙중)은 2018년 가을학기동안 미 주요대학 영화학과 학생들에게 한국영화를 소개하는 Korean Cinema Touring Program을 개최한다. 올해에는 한국의 김종관 감독 (9월), 이창동 감독 (10월), 명필름 심재명 대표 (11월)이 초청될 예정이며, 미 주요대학 (AFI, Chapman, UCLA, USC, UCI) 영화학과에 찾아가 영화학과 교수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한다.

Korean Cinema Touring Program은 LA 한국문화원이 수년간 미 대학들과 연계하여 마스터 클래스를 개설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한국영화홍보사업이며, 미국내 주요대학 영화학도들에게 한국영화를 소개하고 친밀도를 넓히기 위해 기획되었다. 2015년에는 류승완 감독, 정주리 감독, 김형구 촬영감독을, 2016년에는 박찬욱 감독, 김지운 감독을, 2017년에는 윤가은 감독, 최동훈 감독, 황동혁 감독을 초청하여 미국의 미래 영화학도들에게 한국영화감독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한국영화의 우수성을 알렸다. 이 외에도 그동안 미국 내에 한국영화관계자들도 다수 초청하였으며, 이는 미 주요대학 영화클래스의 특별 강연으로 이

루어 졌다.

올해에는 9월 김종관 감독의 방문을 시작으로, 10월에는 아카데미 한국출품작으로 선정된 <버닝>의 이창동 감독이, 11월에는 명필름 대표인 심재명 대표가 LA를 방문할 예정이다. (상세 방문일정은 붙임참조) LA한국문화원 김낙중 원장은 “미국내 최고의 영화학교들에서 한국영화를 상영하여 미래의 영화학도들에게 한국영화를 소개하고 친밀도를 넓히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영화학과 학생들의 한국영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 영화시장 할리우드에 진출하기 시작한 한국영화감독들의 노력과 우수성을 알릴 수 있을뿐 아니라, 미래의 영화학도들과 한국영화와의 연결고리 역할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그는 “특히 올해에는 오스카 한국출품작으로 선정된 이창동 감독의 <버닝>도 같은 시기에 홍보를 함으로써, 홍보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한국영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채프먼 대학교 닷지 영화 미디어아트 학과는 2015년부터 ‘한국영화의 오늘’이란 제목으로 정규과목을 편성하였고, 올해 역시 LA한국문화원이 각 대학 영화과와 협의를 거쳐 학교들과의 특강을 기획하였다. LA한국문화원은 앞으로도 매년 한국영화를 알리는 마스터 클래스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며, 남가주 뿐만아니라 미 서부지역의 주요 대학에도 이러한 기회들이 확산될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끝.

1. 김종관 감독:

○ 9월 24일(월) 16:00-18:45 Chapman University

○ 9월 27일(목) 19:00-21:30 LA한국문화원 (AFI Barry Sabath 교수진행)

2. 이창동 감독 :

○ 10월 22일 (월) 19:00-22:00 AFI

○ 10월 26일(금) 13:00-16:00 UCLA

3. 심재명 대표:

○ 11월 5일(월) 14:00-16:50 UC Irvine

16:00-18:45 Chapman University

○ 11월 9일 (금) 16:00-17:30 USC